전통문화의 이해



2012. 10. 18

김 재 부

전통문화....

정의

- 한 민족에 의해 오랜 세월 지내면서 정착되어진 문화

종류

- 정신문화(무형문화) : 각종 민속놀이, 명절과 세시풍속 등
- 유형문화 :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
- 생활문화 : 먹거리(김치, 된장, 전통차 등), 한복, 살림살이 등

전통문화....

-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이집트의 문화재 -> 런던에
  - 일본의 문화재 -> 보스턴에
  - 한국의 문화재 -> 일본에 많이 가 있음
    - 이집트문화재나 일본의 문화재는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그 그 나라 문화재로 표기되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중국의 문화재나 일본의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전통건축의 특징

전통건축의 특징

-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건축



전통건축의 특징

- 자연에서 얻은 재료 사용



전통건축의 특징

- 자연을 닮은 건축



전통건축의 특징

-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







전통건축의 특징

- 자연스러운 멋 강조



전통건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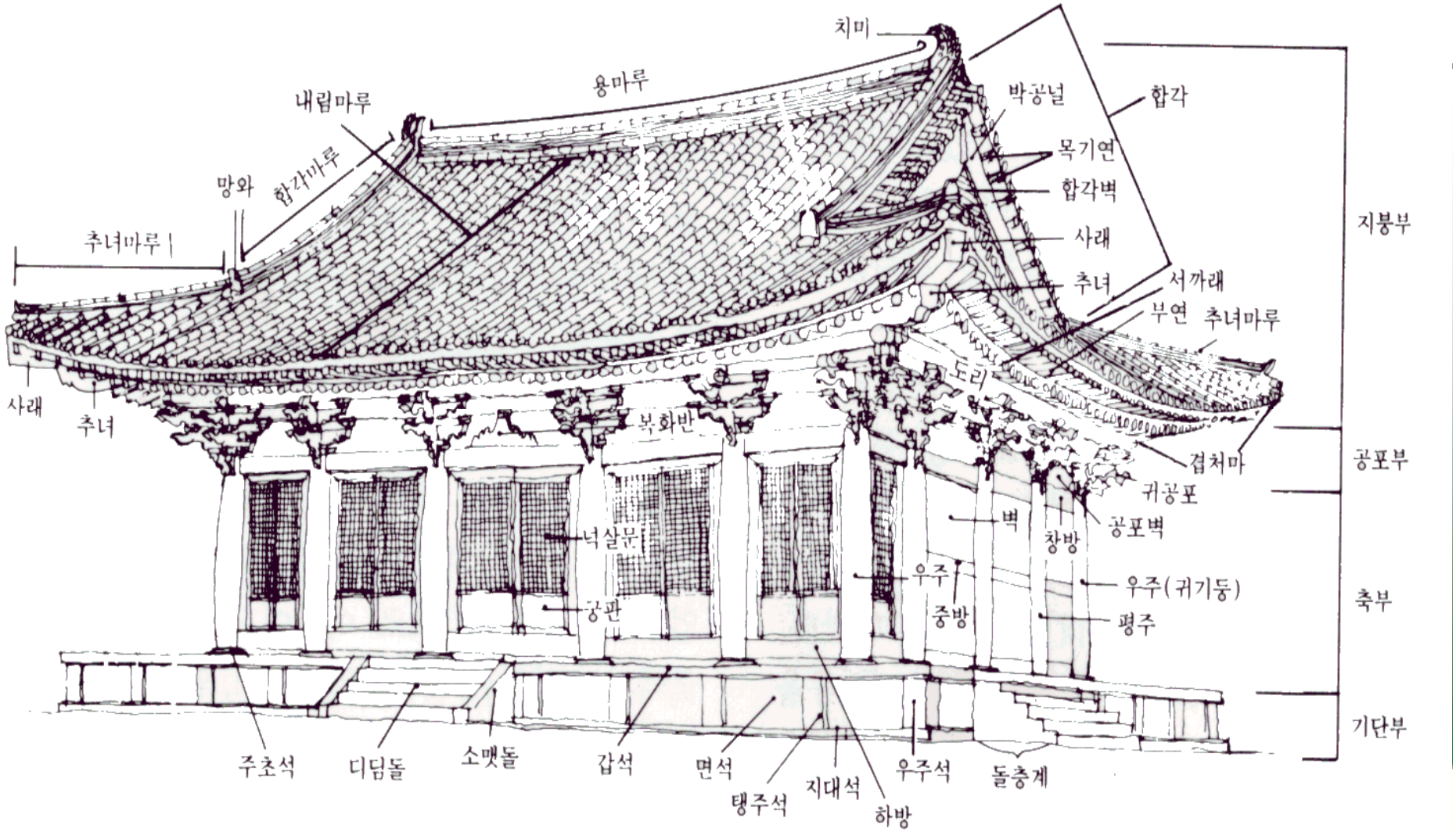
전통건축의 종류

- **초가집 ->** 볏짚이나 밀짚 등으로 엮어 만든다.
- **너와집 ->** 도끼로 쪼갠 널빤지를 이어 덮어 만든다.
- **굴피집 ->** 굴참나무의 껍질을 벗겨 이어 만든다.
- **청석집 ->** 얇고 매끄럽게 잘 쪼개지는 청석을 이어 만든다.
- **기와집 ->** 암키와를 수키와가 위에서 눌러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귀틀집 ->** 통나무로 엇갈리게 쌓아 짓는다.
- **토방집 ->** 흙과 돌로 쌓아 짓는다.

- **주거건축 ->** 계층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사찰 ->** 시대에 따라 교리에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 **궁궐 ->**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하여 크고 화려하게 건설된다.
- **정원건축 ->** 외부 환경의 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건축물들이다.
- **유교건축 ->** 서원과 향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종교시설이다.

전통건축의 구조

전통건축의 구조


치미
용마루
내림마루
박공널
합각
목기연
합각벽
망와
합각마루
사래
추녀
추녀마루
서까래
부연
추녀마루
도리
복화반
겹처마
귀공포
공포벽
벽
창방
넉살문
우주
우주(귀기둥)
중방
평주
궁판
지붕부
공포부
축부
기단부
주초석
디딤돌
소맷돌
갑석
면석
탱주석
지대석
하방
우주석
돌층계

전통건축 - 지붕

- **역할** : 눈비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시켜주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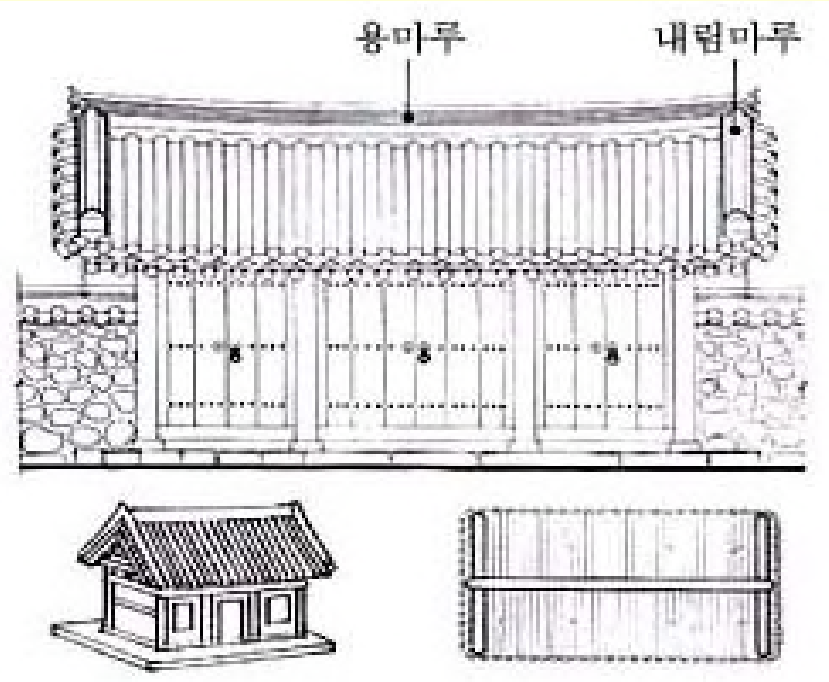
- 한옥은 처마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붕이 대단히 크고 육중하게 보인다.

- 흙으로 구운 기와를 사용하여 무겁기때문에 무게감을 없애주고 빗물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처마의 앙곡과 안허리곡이 생겼지만 이러한 지붕의 곡선은 또한 지붕이 날렵하고 율동적으로 보이게 하여 무게감을 덜어주는 시각적인 역할도 겸한다.

전통건축 - 지붕

맞배지붕

- 건물의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용마루와 내림마루로만 구성되었으며 주로 주심포건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 측면에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추녀라는 부재가 없으며 측면가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풍판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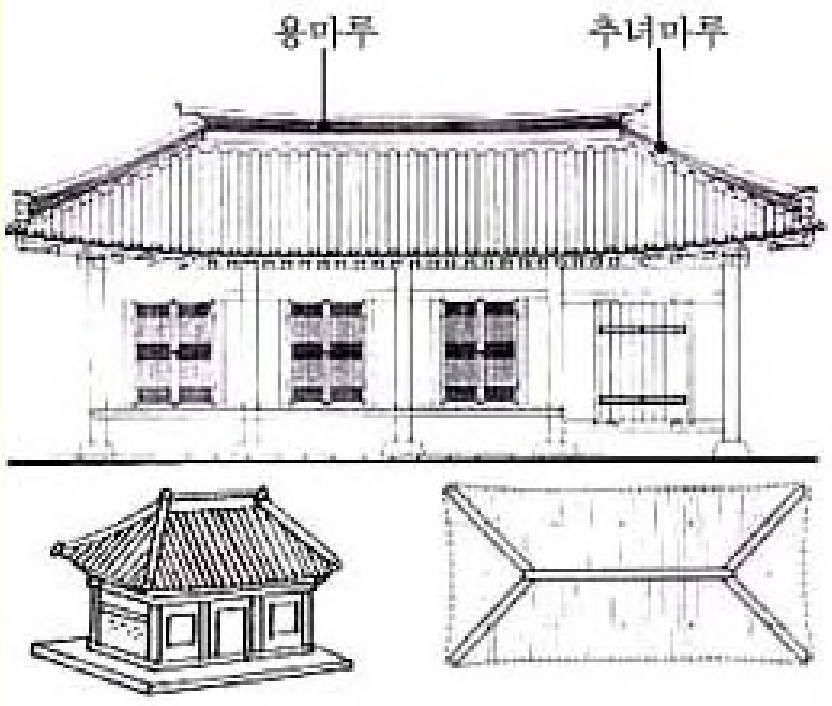


상원사 영산전

전통건축 - 지붕

우진각지붕

- 네 면에 모두 지붕면이 만들어진 형태이다. 전,후면에서 볼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고 양측면에서 볼 때는 삼각형의 지붕형태이다. 용마루와 추녀마루만 있고 내림마루가 없는 지붕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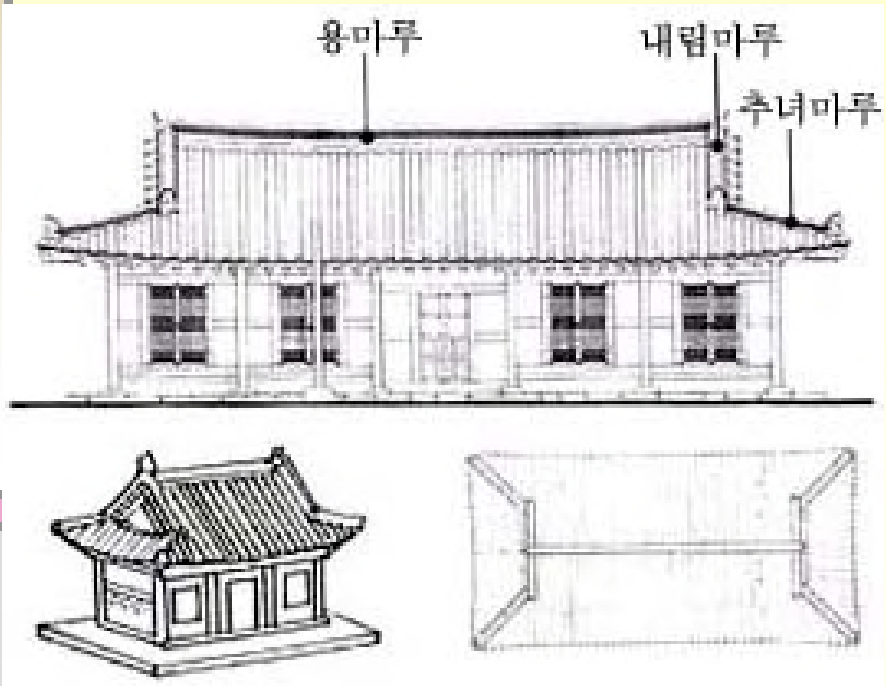


해인사 장경판전

전통건축 - 지붕

팔작(합각)지붕

- 우진각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붕이다. 현존하는 권위건물의 지붕형태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지붕으로 용마루와 내림마루 추녀마루가 모두 갖추어진 가장 화려하고 장식적인 지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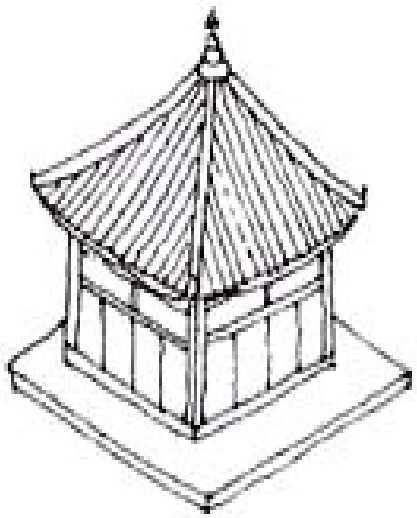


월정사 적광전

전통건축 - 지붕

모임지붕

- 용마루 없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골이 만나는 지붕형태이다. 모임지붕은 평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 등이 있다.



사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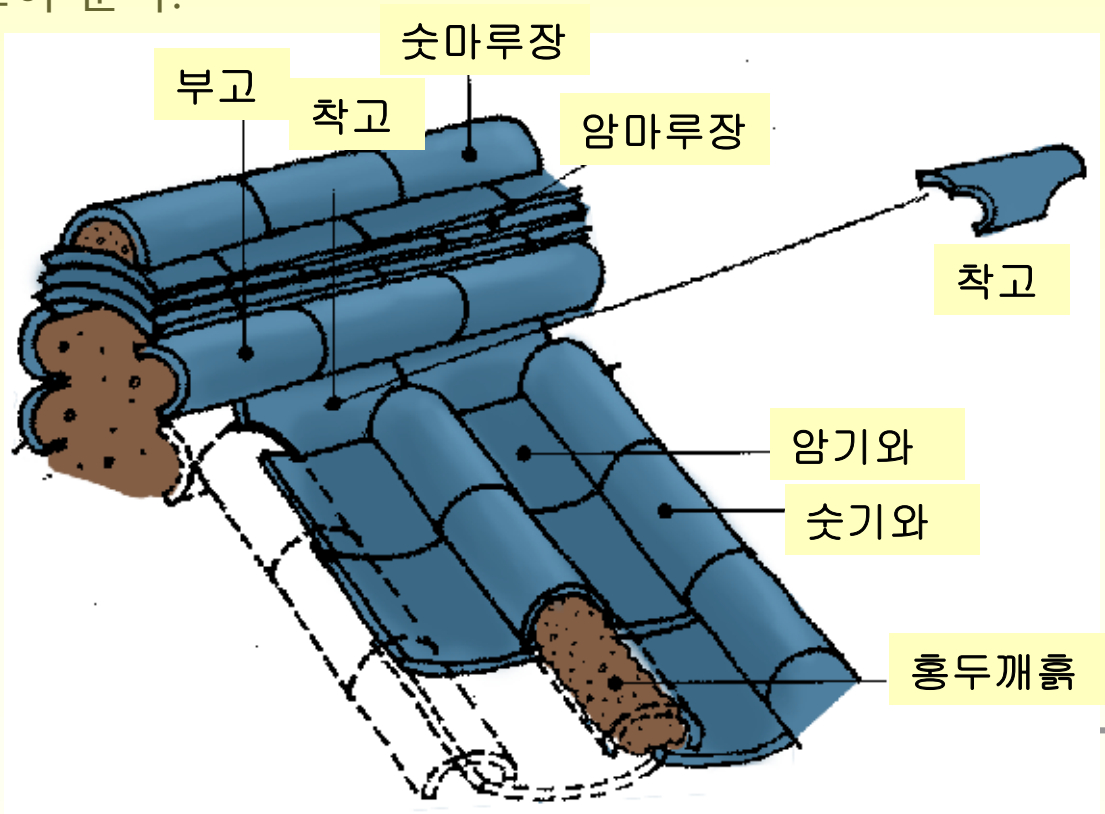
육모지붕



법주사 원통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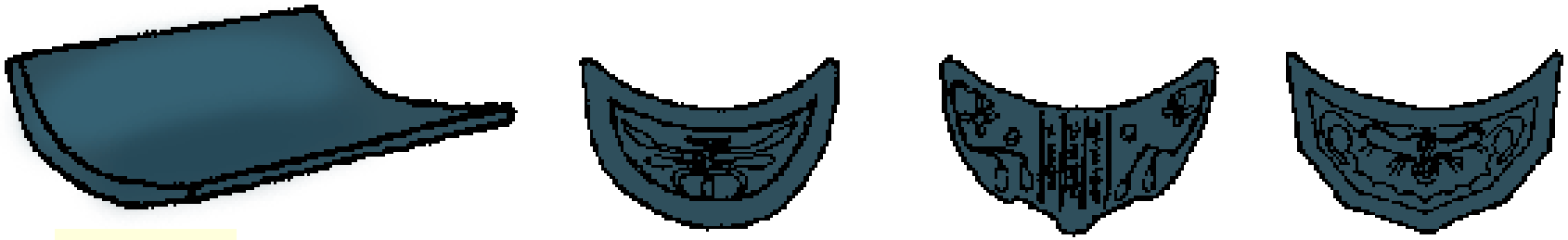
전통건축 - 기와

- 기와
  - 지붕에 덮는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든 방수를 위한 마감재료이다. 고구려는 대부분 적갈색을 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강한 느낌을 주고 백제는 연회색을 띄고 매우 섬세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 준다. 신라는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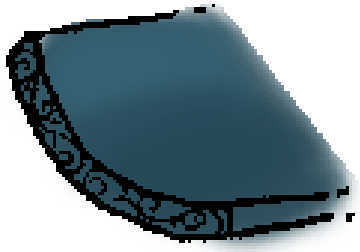


전통건축 -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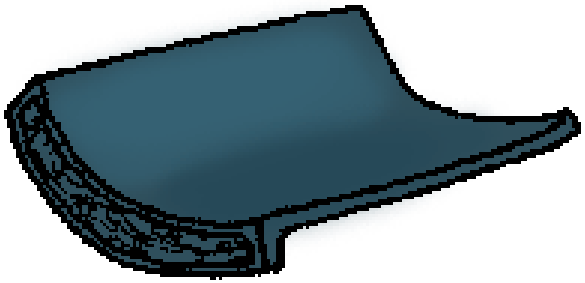
- 암기와
  - 지붕 바닥면에 깔리는 기와로 곡율이 완만한 사방 한 자 정도 크기의 기와이다.
  - 그리고 처마 끝에 거는 마구리 기와는 혀를 내서 특수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막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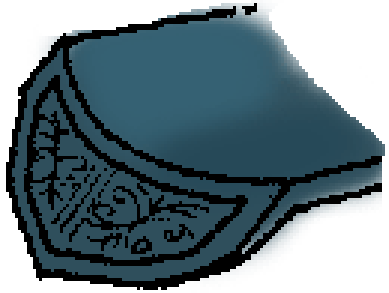
암기와



초기암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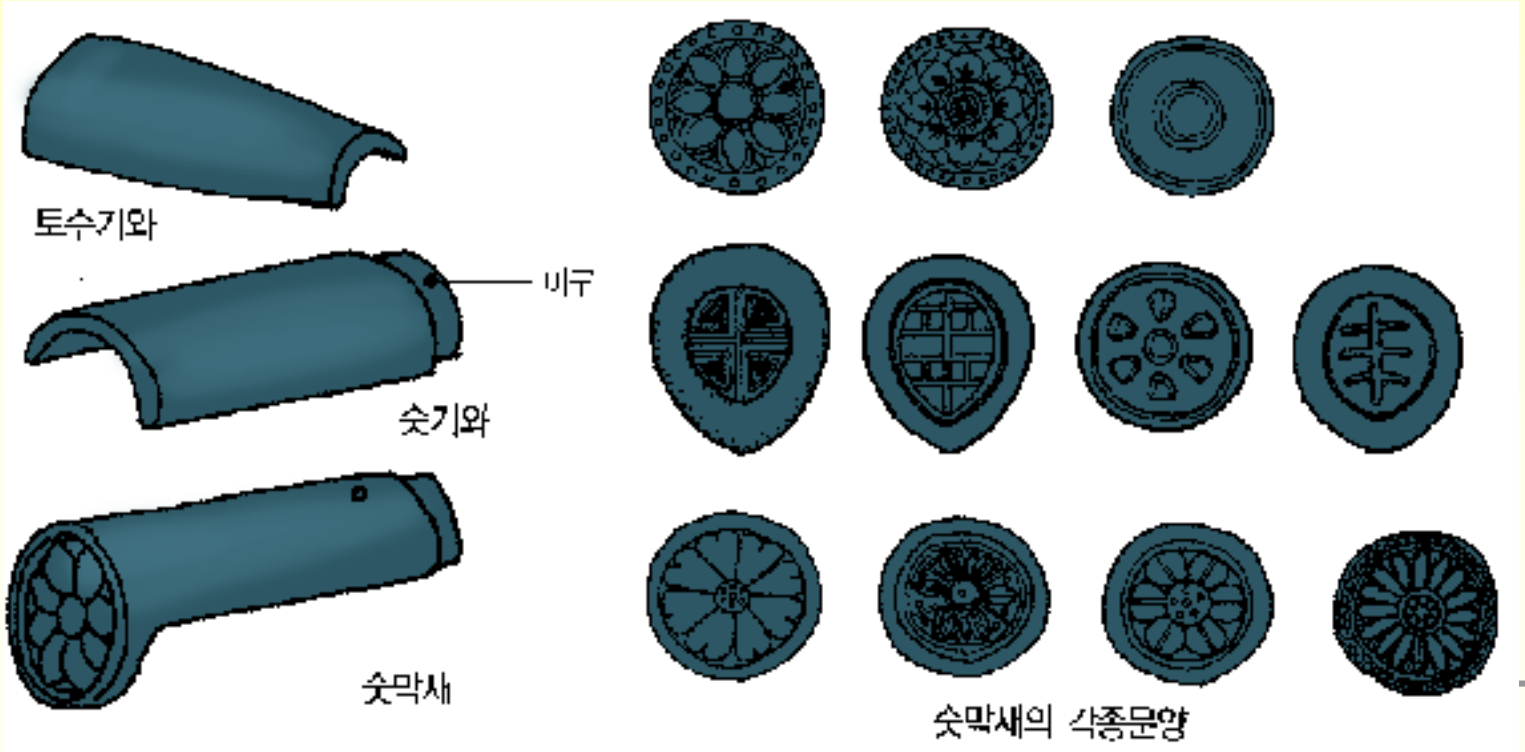
삼국시대암막새



조선시대암막새

전통건축 - 기와

- 숫기와
  - 암기와 위에 올라가는 기와로 길이는 암기와와 같으나 폭은 반정도 밖에 안 되는 반원형 단면의 기와이다. 의궤의 기록으로는 부와라고도 하였다.
  - 암막새에 대하여 추녀에 걸리는 마구리를 둥그렇게 만든 장식기와를 숫막새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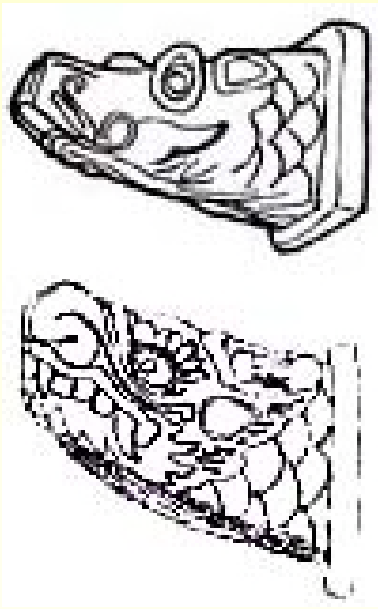
전통건축 - 기와

토수

- 추녀 끝에는 비가 잘 들이치기 때문에 이무기 머리모양의 기와를 구워 신발을 신기듯이 추녀의 끝에 씌우는데 이를 '**토수**'라고 부른다.
- 또 연목과 부연 끝에 물이 스미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와를 구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박는데 이를 '**초가리기와**'라고 한다.



경복궁의 토수



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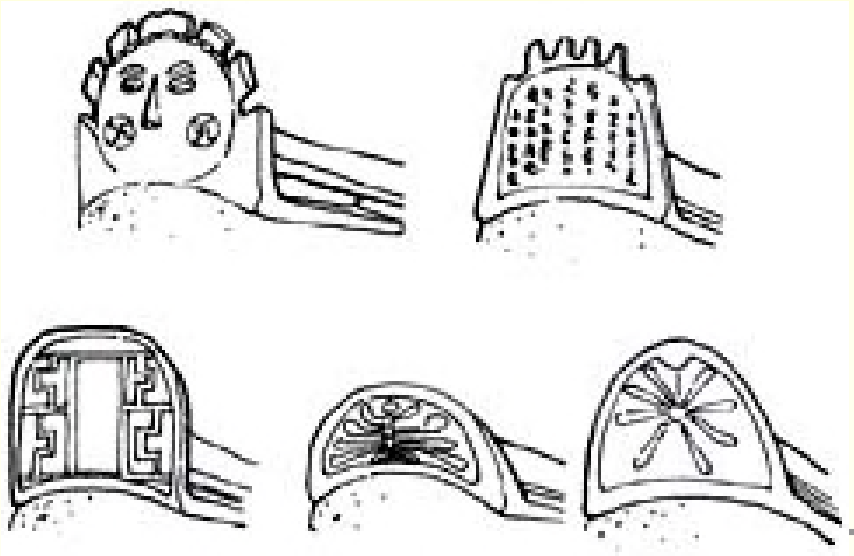


백제 초가리기와
(국립 부여박물관)

전통건축 - 장식기와

장식기와

-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이나 내림마루 및 추녀마루 끝에는 마감을 위하여 암막새를 뒤집어 이은 것과 같은 장식기와가 올라가는데 이를 망새기와, 망와라고 한다.
- 추녀마루 끝에는 종종 말안장처럼 생긴 원통형의 망와가 놓이기도 하는데 이를 바래기기와 또는 곱새기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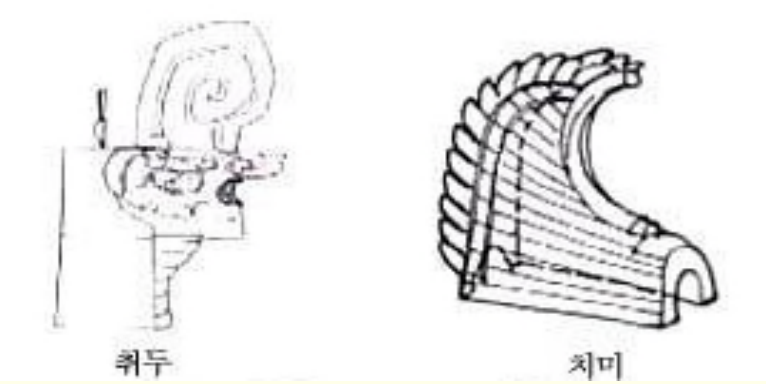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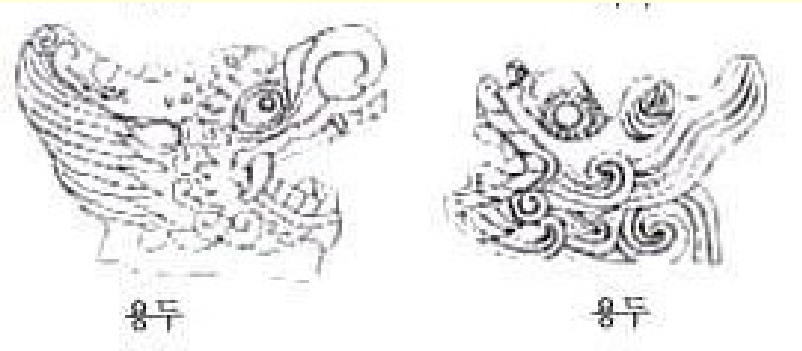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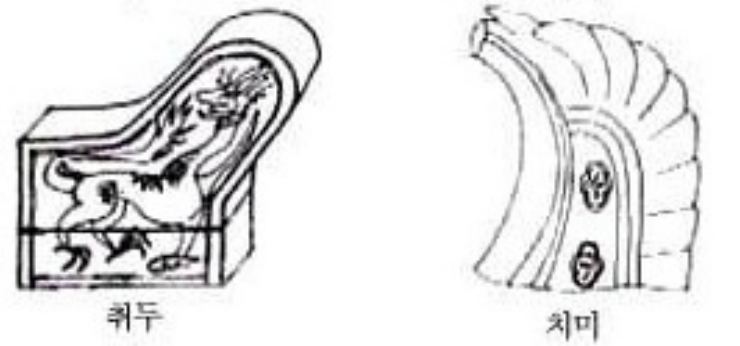
전통건축 - 지붕장식

지붕장식

- 용마루 양쪽에 새 날개나 물고기 꼬리 모양의 장식기와가 올라가는데 이를 **치미**라고 한다. 조선시대 이후로는 치미 대신에 용마루 양쪽을 물고 있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이 올라갔는데 이를 **취두**라고 한다. 내림마루 끝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용두**라고 한다.







전통건축 - 지붕장식

- 지붕장식



치미



취두



용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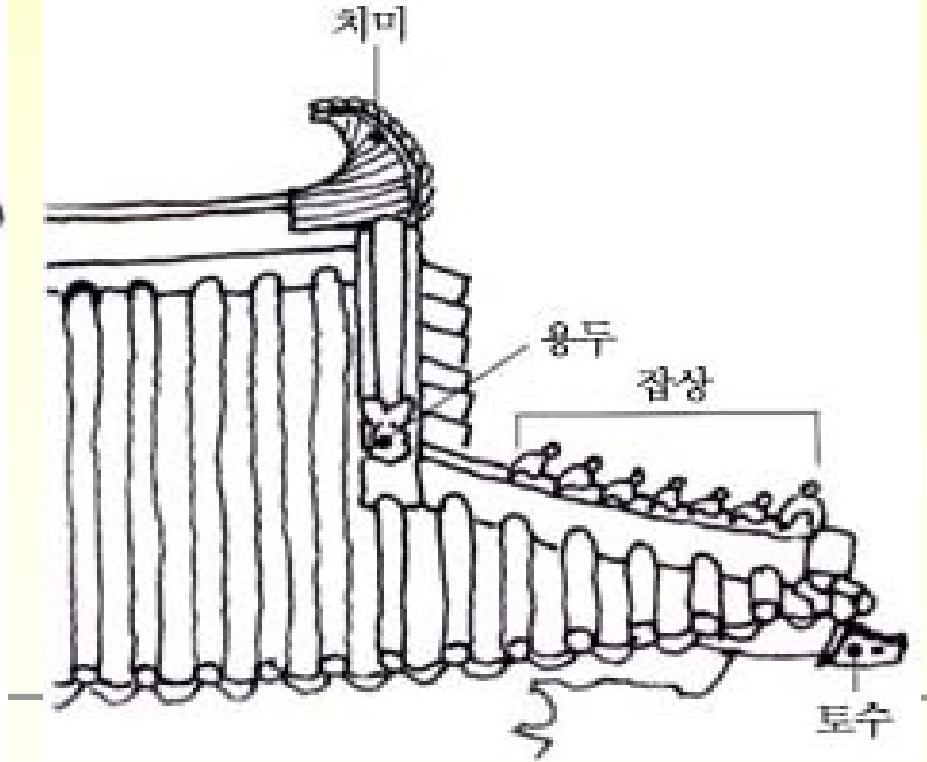
전통건축 - 지붕장식

잡상

- 추녀마루 끝에는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모양의 장식기와를 필두로 여러 동물형상의 기와가 올라가는데 이를 **잡상**이라고 부른다. 지붕에 올라가는 이러한 다양한 장식기와들은 깔끔하게 지붕을 마감해 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액을 막아준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잡상의 여러모습



전통건축 - 지붕장식

- 잡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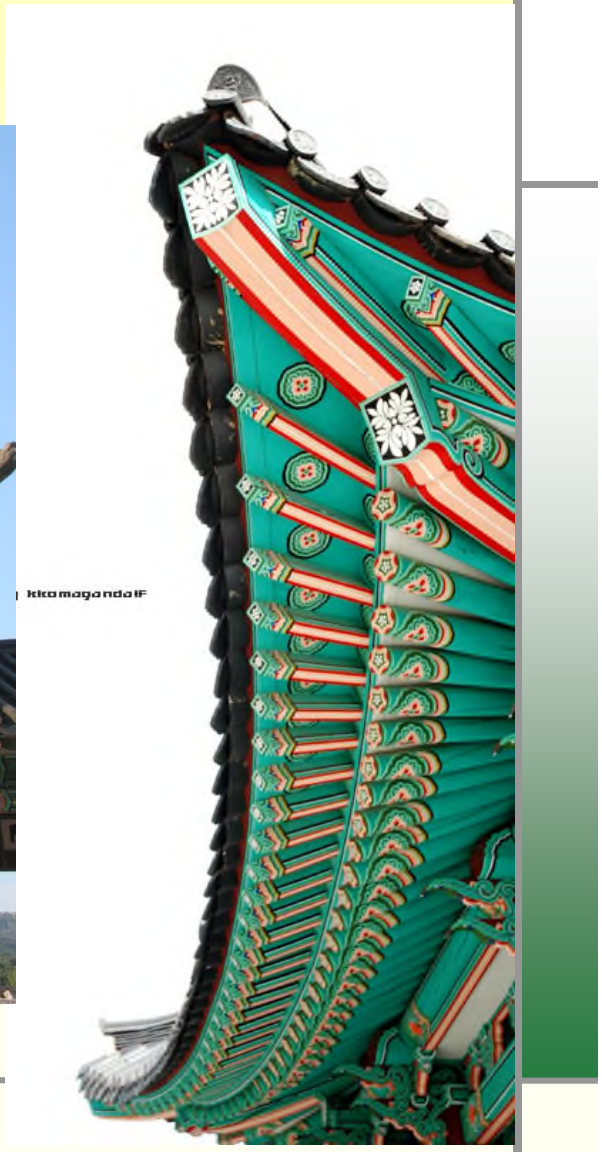


전통건축 - 처마

- 처마선은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입체적인 곡선을 그리게 된다. (앙곡, 안허리곡 기법)
- 이는 흙과 기와로 구성돼 엄청난 하중을 갖고 있는 지붕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효과와
- 착시현상으로 자칫 아래로 처져 보일 수 있는 지붕선을 바로잡는 기능도 한다.
- 한옥의 깊은 처마는 시각적 효과뿐 아니라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 처마선을 만드는 일은 고난도 작업에 속하고 대목장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통건축 - 처마





전통건축 - 기둥

단면형태(기둥깎는 기법)에 따른 분류

▷ 원(圓)기둥

- **원통기둥** : 기둥위부터 아래까지 일정한 굵기

- **민흘림기둥** : 안정감과 착시교정을 위해 위보다 아래가 굵은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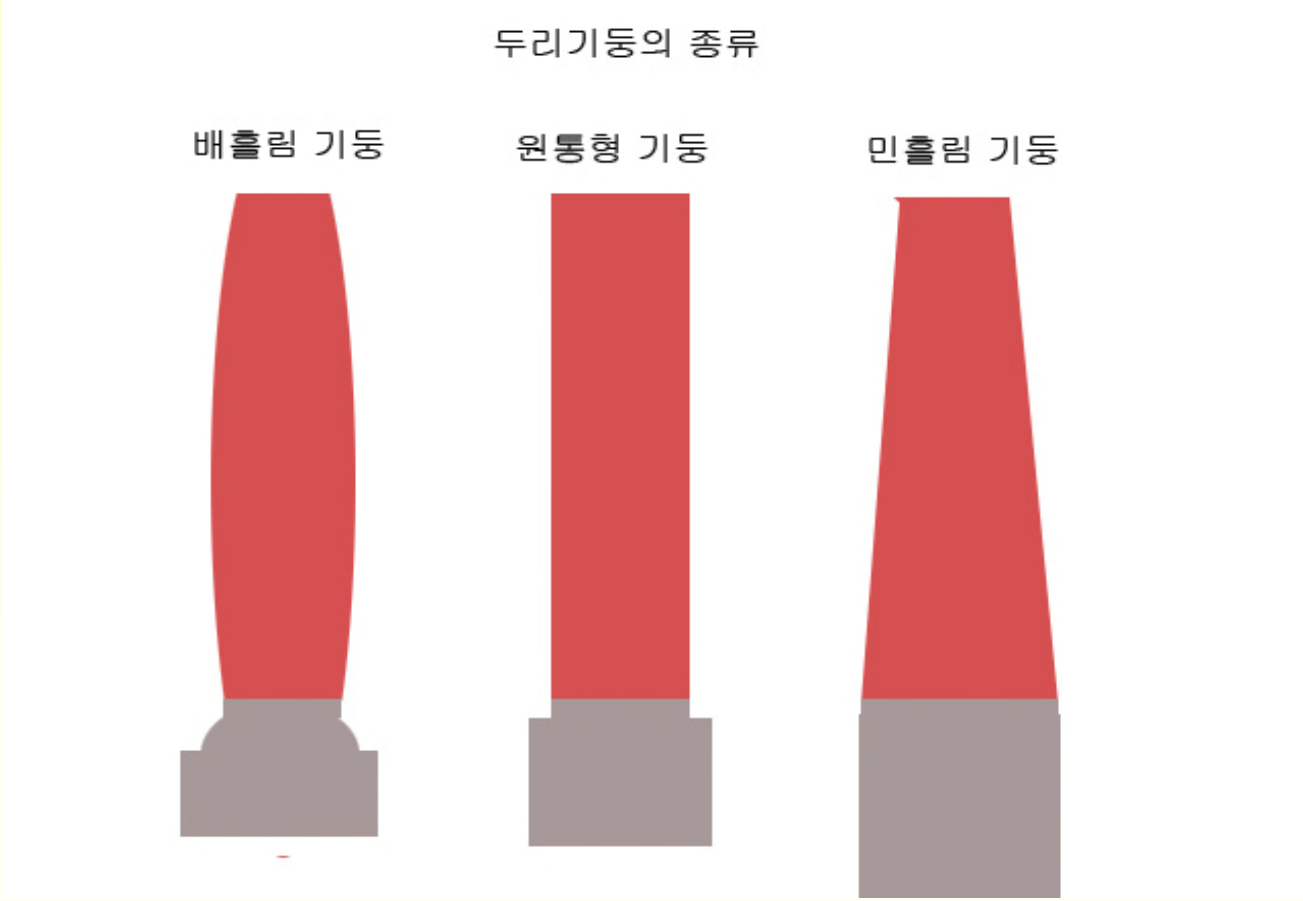
- **배흘림기둥** : 높이의 1/3정도에서 가장 굵어졌다가 다시 차츰 가늘어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기둥

▷ 각(角)기둥

- **4각주(四角柱)** : 일반주택이나 장식이 덜한 건축물에 사용
- **6각주(六角柱)** : 건축물 평면이 6각인 정자 건축물에 사용
- **8각주(八角柱)** : 장식이 많은 건축물에 사용

전통건축 - 기둥

- 기둥의 종류



전통건축 - 기둥

- 위치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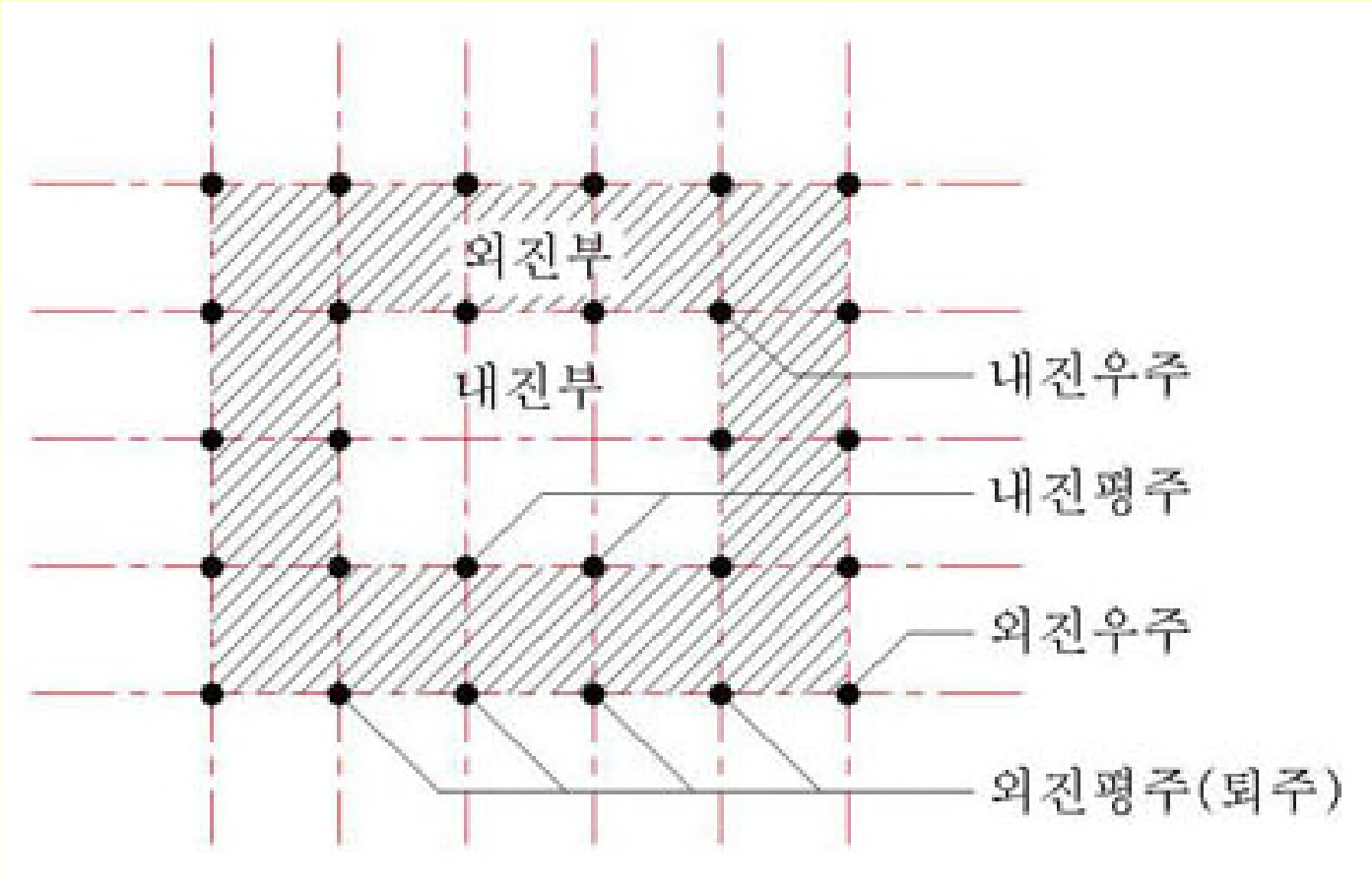
▷ 외진주(外陳柱 : 바깥기둥)
- 평주(평기둥 ; 중간기둥)와 우주(귀기둥 ; 바깥기둥)
- 소규모의 구조물에는 외진주만 사용

▷ 내진주(內陳柱 : 안기둥)
- 고주는 대부부의 구조물에 사용되며
- 단주는 중층건축물에 사용되고
- 실심주는 다층건축물과 목조탑파형식에 사용된다.

▷ 동자주(童子柱)(활주) : 추녀부분의 처짐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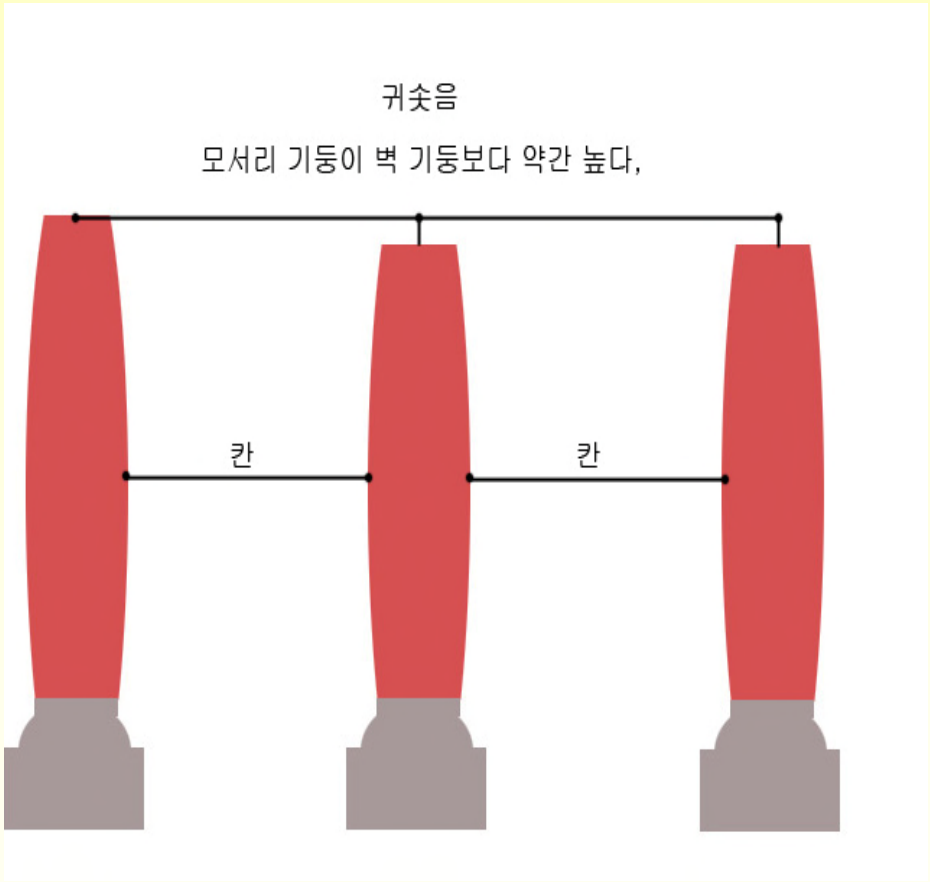
전통건축 -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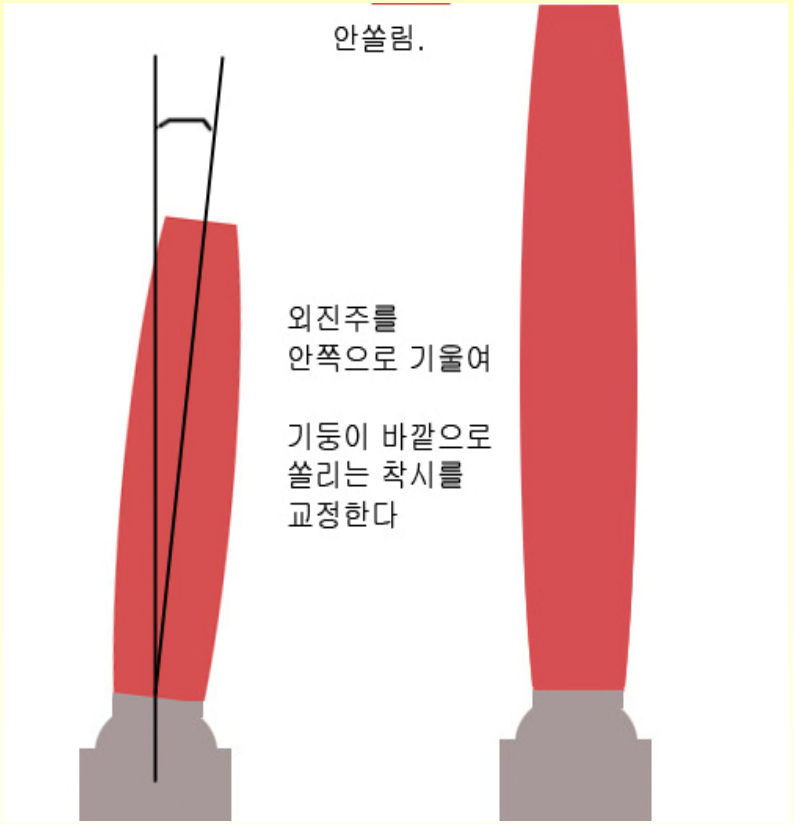
- 기둥의 배치도



전통건축 - 기둥

착시 교정방법





전통건축 - 기둥

- 착시 교정방법



귀솟음



안쏠림

전통건축 - 기둥

- 도량주
  - 가지만 툭툭 쳐내고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가공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움을 살림
- 그랭이기법
  -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초석의 면에 기둥을 맞추어 잘라냄



도량주



그랭이기법

전통건축 - 초석

- 초석(礎石)
  - 주초(柱礎) 혹은 주초석(柱礎石)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둥을 통해 전달된 상부의 하중을 기초를 거쳐 지반으로 전달해 주며 지면의 습기로부터 기둥뿌리를 보호해 주는 부재이다.
- 막돌초석, 자연석 초석(덤벙柱礎)
  - 초석상면을 가공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자연석을 그대로 초석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며, 초석상면이 고르지 않아 초석간의 수평이 맞지 않게 놓여져 덤벙주초라고도 한다.
  - 그랭이질 : 덤벙주초에 기둥을 세울 때 기둥뿌리부분을 초석상면의 형태와 같이 다듬는 것
- 가공석 초석, 다듬돌 초석(정평柱礎)
  - 다듬은 돌을 사용한 초석

전통건축 -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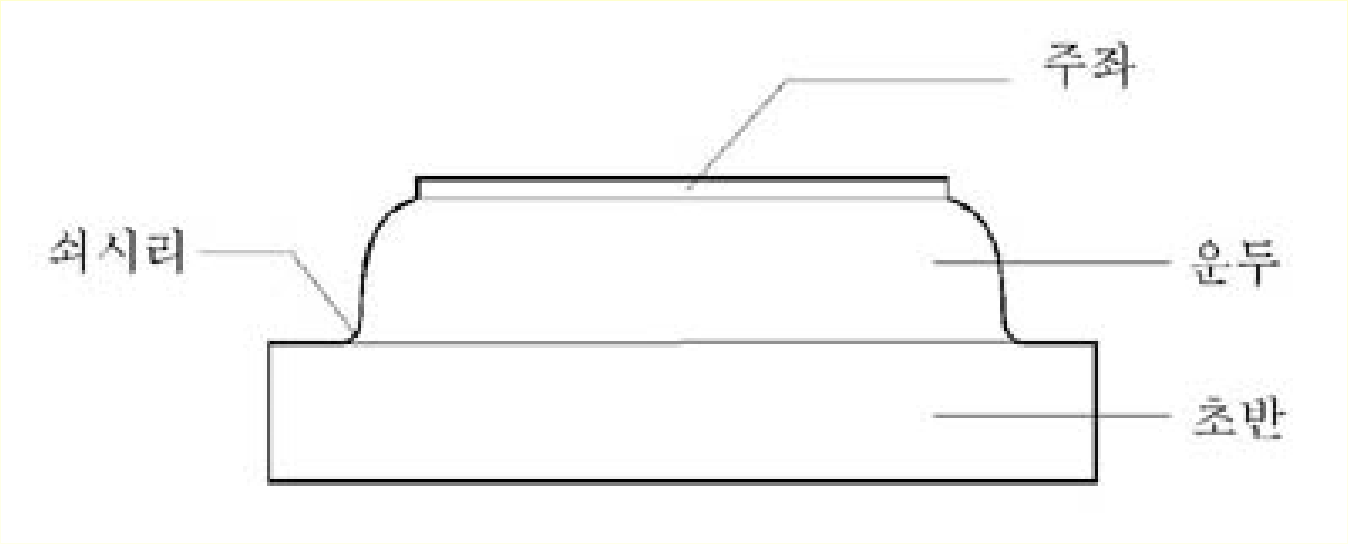
- 막돌초석(덤벙柱礎)

- 천연석을 돌 생김새의 굴곡면에 기둥을 깎아 맞춰 얹어 놓음으로서 초석과 기둥의 일치감을 주어 견고한 안정감과 자연스런 조화를 준다.
-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전통건축 - 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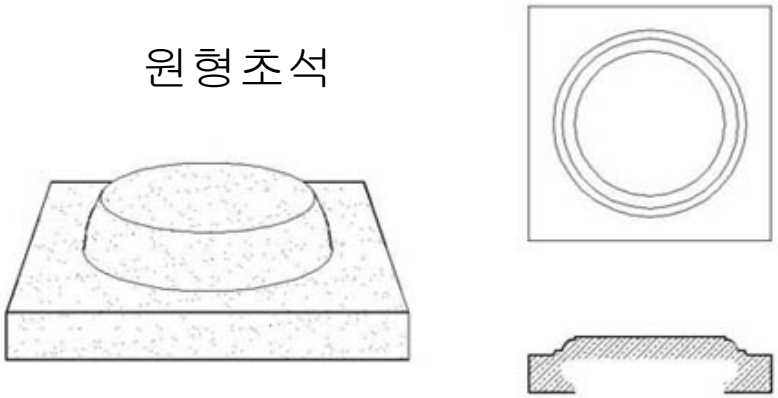
- 다듬돌 초석(정평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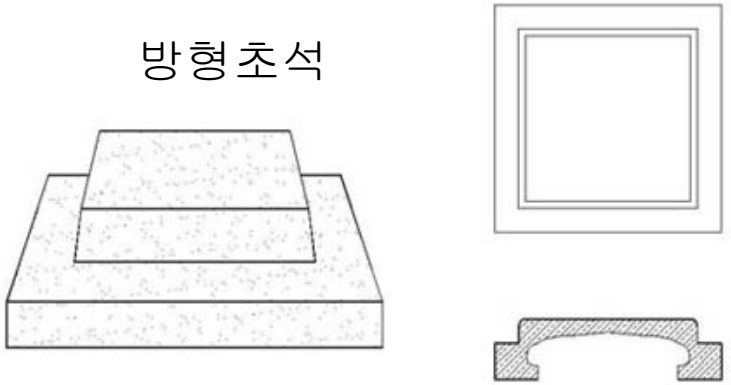
전통건축 - 초석

- 다듬돌 초석 종류

원형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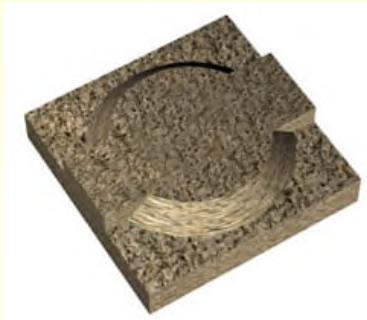


방형초석





팔각초석



고맥이초석



사다리형초석



복고형초석

전통건축 - 기단

- 기단은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구조로서 돌이나, 흙, 벽돌 등으로 만든다.
- 빗물이 고이지 않고 해충이나 뱀과 같은 금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자연기단에는 지반과 암반이 있고,
- 가공기단에는 토축기단, 성토기단, 축석기단, 가공석쌓기, 가구(架構)기단, 전축(塼築)·와축(瓦築)기단 등이 있다.
- 기단에서도 조금 높은 기단이나 마루에 오르내리기 좋도록 한 두단 높이로 꾸민 돌계단을 디딤돌(步石)이라 하고,
- 긴돌로 만든 것을 장보석(長步石)이라 한다.

전통건축 - 기단

쌓는 재료에 따른 분류

- **토 단** : 조선시대 서민주택의 기단, 흥륜사지
- **토축기단** : 판전으로 백제시대 건축, 익산 왕궁탑
- **전축기단** : 방전이나 기와를 세우거나 눕혀 마무리하는 형식, 부여 군수리 사지, 화성성곽 포루
- **석축기단** : 판전 또는 막돌 허튼층 쌓기로 마무리한 형식, 한국 기단의 주류

단형식의 수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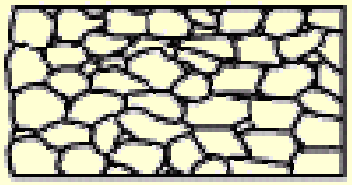
- **단층기단** : 높이에 관계없이 하나의 층
- **다층묘단** : 층수가 2이상이 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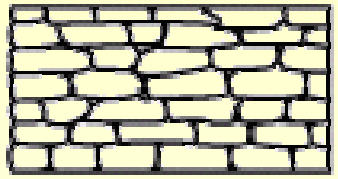
마감석재의 형태와 층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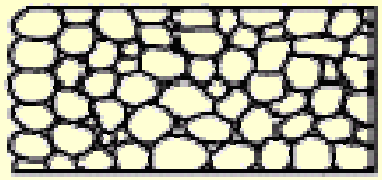
- 막돌 허튼층 쌓기 : 봉정사 대웅전, 부석사 석축, 해인사 대장경 판고
- 막돌 바른층 쌓기 : 금산사 미륵전 측면기단
- 다듬돌 허튼층 쌓기 : 도동서원 강당.
- 다듬돌 바른층 쌓기 : 도산서원 전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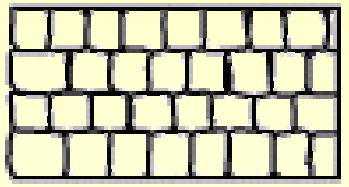
전통건축 - 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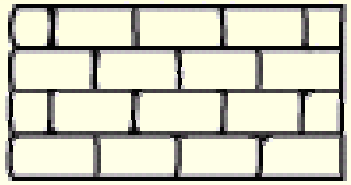
- 기단쌓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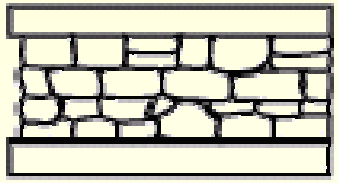

막돌막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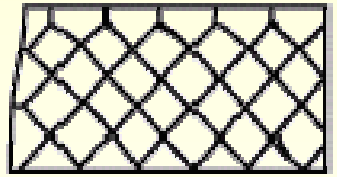

납작돌수평줄눈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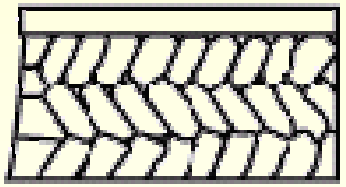

개울돌막쌓기


사고석쌓기


이고석쌓기


상하장대석막돌면석


견치돌빗쌓기


빗쌓기

전통건축 - 기단



전통건축 - 공포



전통건축 - 공포

- 지붕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재료이다.
- 기둥으로부터 처마까지의 시선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 주심포 양식

  - 고려초기에 신라와 송의 건축양식을 바탕으로 주두 위에만 짜는 양식이다.

- 다포양식

  - 고려후기에 기둥사이 공간에도 창방위에 두꺼운 평방을 더 올려 놓은 양식이다.

- 익공양식

  - 조선초기에 주심포 양식을 간략화 한것

- 하앙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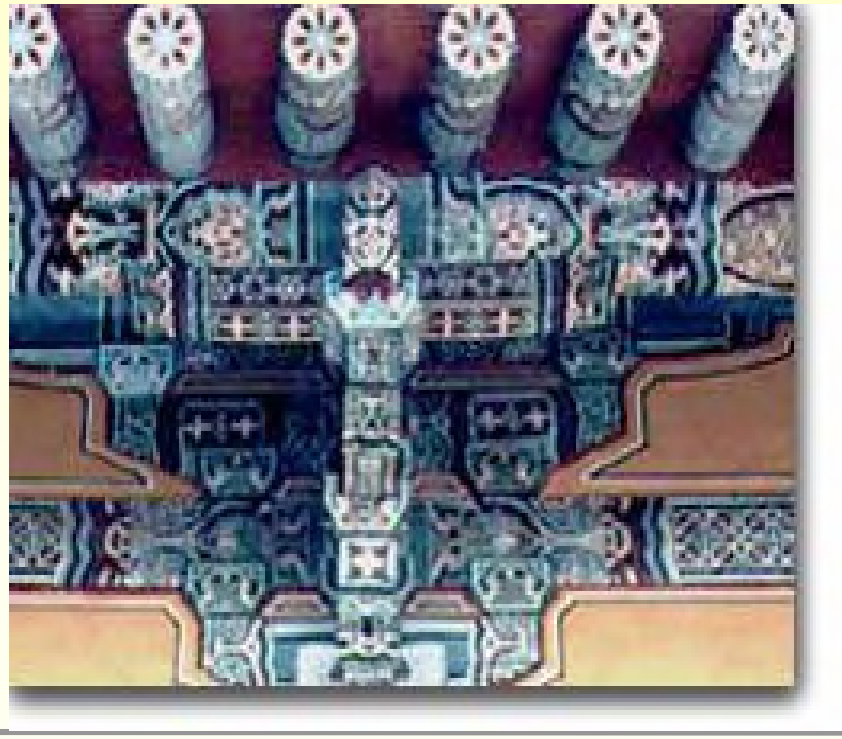
  - 처마를 들어 올리고 처마를 깊게 돌출시키기 위해서 발단된 양식

전통건축 - 공포

- 주심포양식(柱心包樣式)

  기둥 위에 바로 주두를 놓았고 치목이 아름답게 되어 있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을 하였다. 전통 목조 건축의 가구 형식중 가장 오래된 형식으로 소박한 느낌을 준다. 배흘림기둥에 간단한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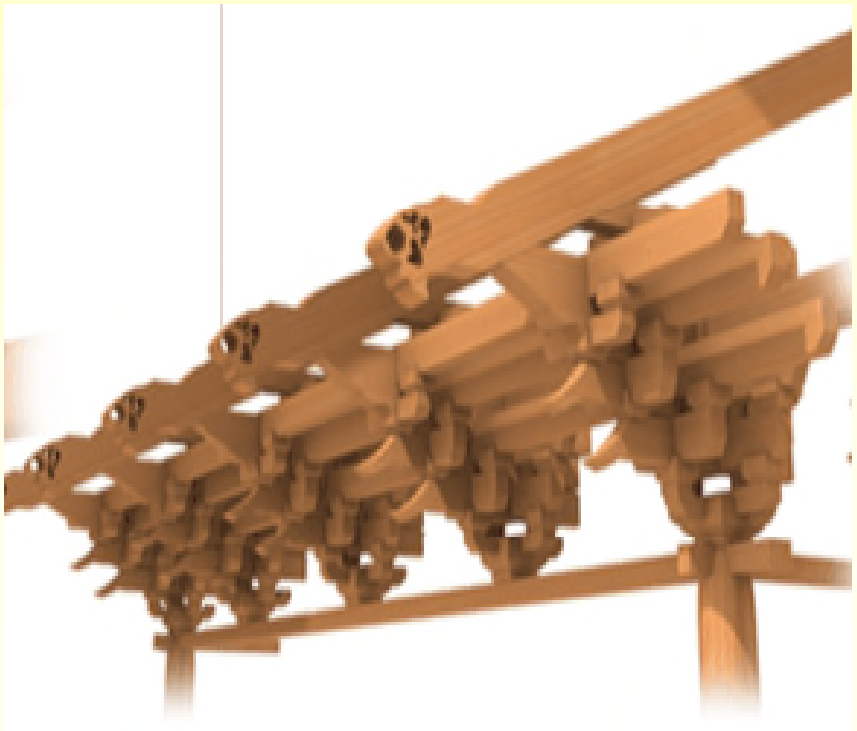




전통건축 - 공포

- 다포양식(多包樣式)

  교두형 첨자를 사용하며 배흘림이 심하지 않고 부재가 규격화 투박화 되는 것을 내부 반자를 두어 은폐하였다. 건물을 장중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포작도 여러층 겹쳐 짜고 팔작지붕으로 하고 있다.





전통건축 - 공포

- 익공양식(翼工樣式)

  장식 부재가 하나인 초익공 또는 익공과 부재를 두개 장식한 이익공이 있어 관아, 향묘, 서원, 지방의 상류 주택에 많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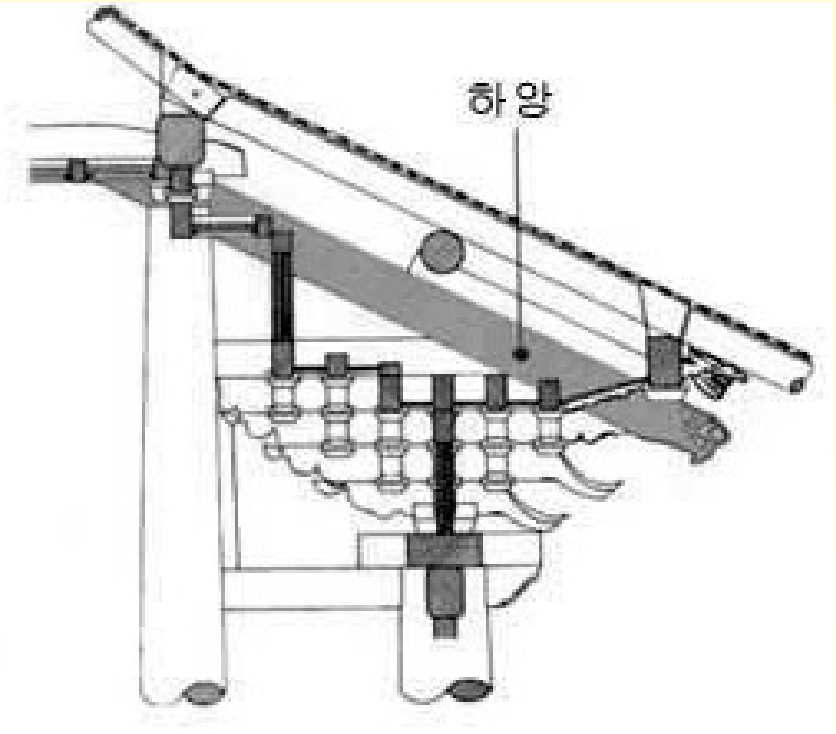




전통건축 - 공포

- 하앙양식(下昻樣式)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지붕서까래와 도리 밑에서 건물 안으로부터 밖을 길게 뻗어 나와 처마를 받쳐주는데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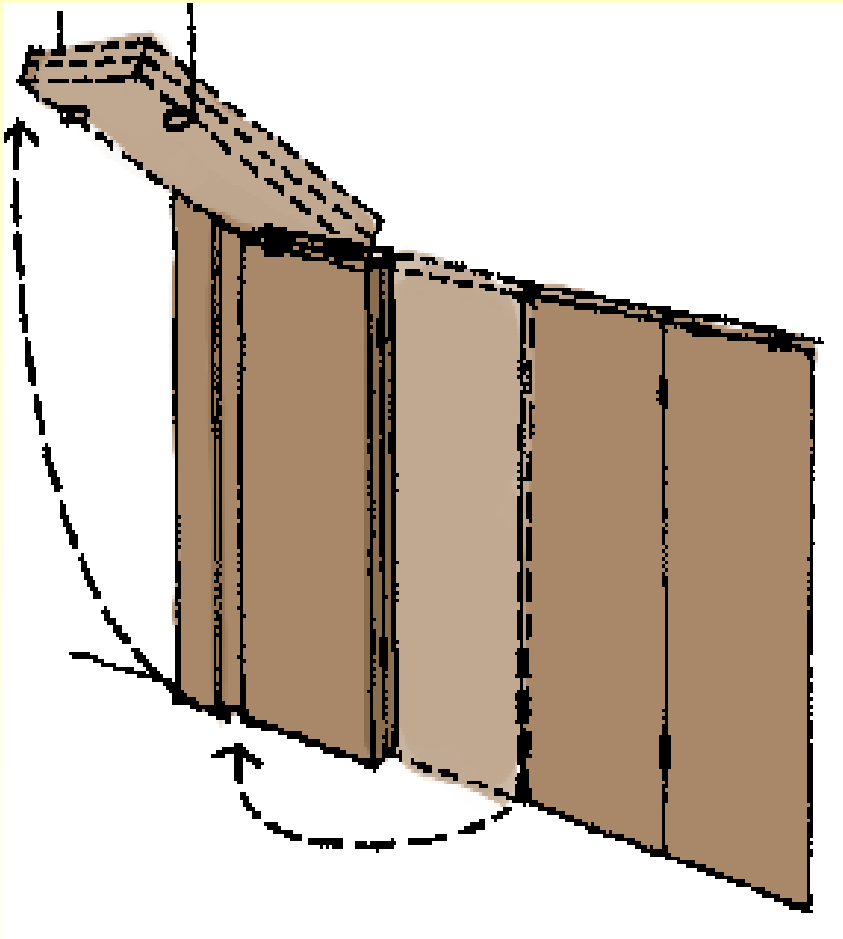
문

- 꽃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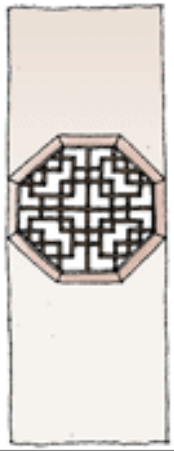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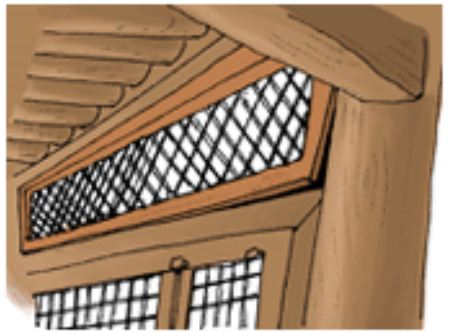
문

- 분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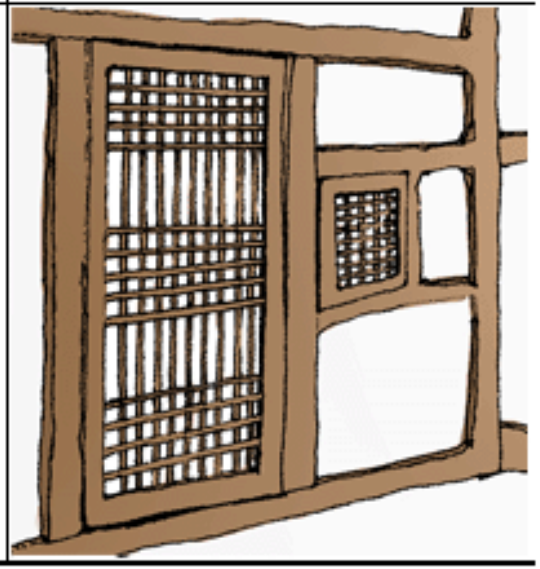




창

살창	◘살문처럼 울거미 속에 얇은 살대를 짜 만든 창	
불발기창	◘분합문 중간정도에 팔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창	
광창	◘출입문이든 창문이든 문상붕위에 길게 달린창으로 통풍이 목적이다.	
봉창	◘환기나 일조를 위하여 벽에 붙박이로 만들어지는 창	

창

벼락닫이창	◘분합문처럼 밑에서 열어 문고리에 끈을 매고 고정시키거나 나무 작대기를 받쳐 고정하는 창	
눈꼽째기창	◘문이나 창에 달린 아주 작은 창	

창과 문의 구분



전통건축 - 마루

- 폐쇄적인 방과 개방적인 마당을 절충한 공간
- 안과 밖의 완충장치인 마루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 또 이웃간의 경계가 그만큼 누그러질 수 있는 것이다.
- 마루는 바닥이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마루 밑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되고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아 준다.
- 여름철에는 시원한 대청에서 일상 생활을 처리하고,
-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행사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 때에 따라서는 손님을 맞는 접대의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통건축 - 마루

- 툇마루나 쪽마루는 방이나 대청 마루 바깥에 붙여 달아 낸 좁은 마루로
- 툇마루에는 마당 쪽으로 벽체나 창호가 달리지 않고 툇칸에 세운 기둥만 있는 구조이고,
- 쪽마루는 툇기둥이 없이 동바리(마루나 좌판 밑을 받치는 짧은 기둥)로 아래를 받친 좁은 평상처럼 생긴 마루를 일컫는다
- 누마루는 사랑채의 가장자리 칸에 다른 바닥보다 좀 높게 다락처럼 만든 마루
- 중부지역의 대청에는 접어 들어올릴 수 있는 '분합문'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 마루는 대부분 '우물마루'로 만들어지는데 모양이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통건축 - 마루



툇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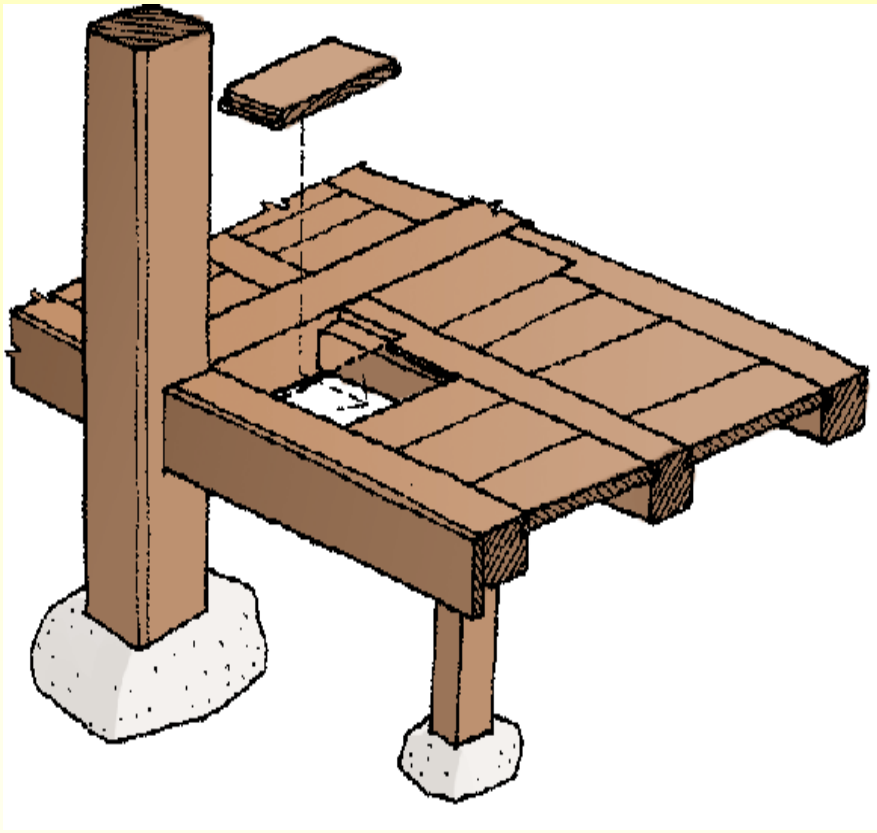
쪽마루



누마루

전통건축 - 마루





우물마루

전통건축 - 마루



전통건축 - 온돌

-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방바닥 밑의 구들장을 데워 그 열이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방안의 공기를 데우는 장치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방식이다.

- 고구려시대의 장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온돌로 점차 발전되어 온 것이다.



전통건축 - 담장

- 집 전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
- 여러개의 영역들을 서로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 영역간을 서로 강력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이기도 하다.
- 담은 사람의 흐름을 유도하기도 한다.
- 담은 건물의 지지대 일 수 있다.
- 담이 때론 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 건축주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의장을 달리한다.
  - 서민 주택의 담장은 돌담이나 흙담에 초가지붕을 하고,
  - 중상류 주택이나 관아 건축에서는 기와지붕을 하며,
  - 궁궐에서는 담장에 양동을 설치 뚜렷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난다
  - 궁궐의 담장은 주택의 담장보다 훨씬 높다.
  - 서민 주택에서는 담장이 단순히 대지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성격이 강하고,
  - 상류주택에서는 외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통건축 - 담장



돌각담



화초담



초가지붕 흙담

마당의 의미와 역할

- 장소 개념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 터'를 의미한다.
- 활동이나 생활을 담는 기능의 의미까지 확대된다.
- 자연과의 조화를 최상의 미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조형의식 때문에 비워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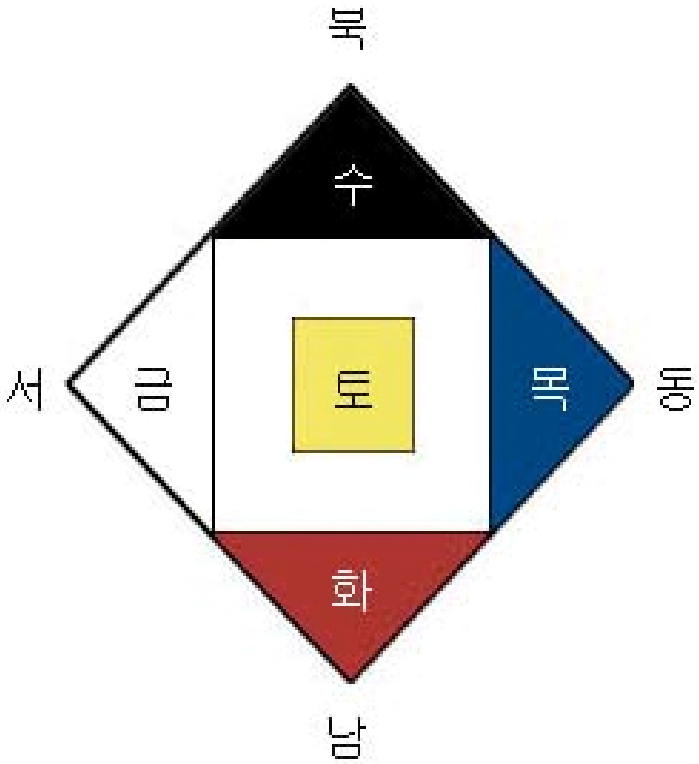
-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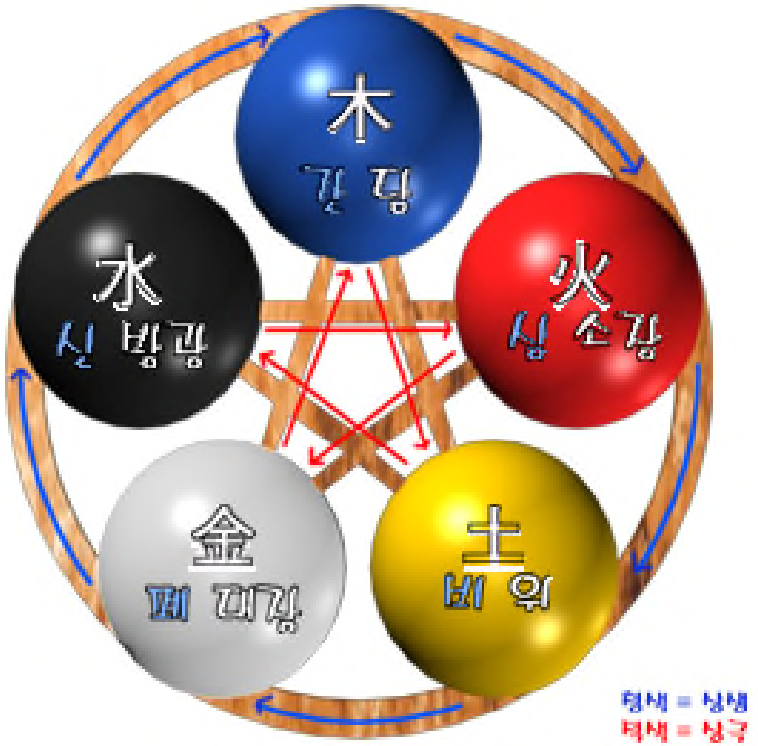
- 조명효과
- 여름철 냉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평소엔 아이들의 놀이터
- 집안의 각종 행사 때는 상황에 맞는 행사장의 역할
- 농사철에는 그에 맞는 작업장

전각의 유형

- **당(堂)과 전(殿)**
  - 크고 높은 건축물
- **루(樓)**
  - 1층 이상의 건물로 '중옥(重屋)'이라고도 한다.
- **각(閣)**
  - 1층 이상의 건물로 1층은 대부분 지주층일 뿐이다.
- **관(館)**
  - 객(客)들이 사용하는 건축물로 나중에 공공건축물의 명칭이 됨
- **정(亭)과 사(射)**
  - 지붕과 지주(支柱)만 있고 벽이 없는 건축물이다.
- **헌(軒), 재(齋), 여(廬)**
  - 별장과 유사한 건축물의 명칭

오방위 오방색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중국의 전설 속의 동물로 용이 낳았다는 아홉 자식을 가리킨다.
- 각각 그 모습과 성격이 다르며, 그 성격에 맞는 장소에서 각자 활약하나 용은 되지 못했다고 한다.
- 형제들이 성격이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 건축물인 지붕, 대문, 축대, 감옥 등과 건축 소품인 종, 향로, 비석, 정(鼎) 등에 사용되고 소지품인 칼에도 새겨져 있다.
- 건축미를 높이기 위해서이겠지만 건축물의 품위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첫째는 '贔屭(비희)'
  -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좋아 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둘째는 '鴟吻(치문)'**
  -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데 특히 불끄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셋째는 '蒲牢(포뢰)'
  - 모양은 용을 닮았지만 용보다 작고, 울부짖는 것을 좋아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네째는 '狴犴(폐안)'
  - 정의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며 옥의 소송을 맡기도 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다섯째는 '饕餮(도철)'**
  - '도철'은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모양은 늑대를 닮았고, 惡獸(악수)로 불린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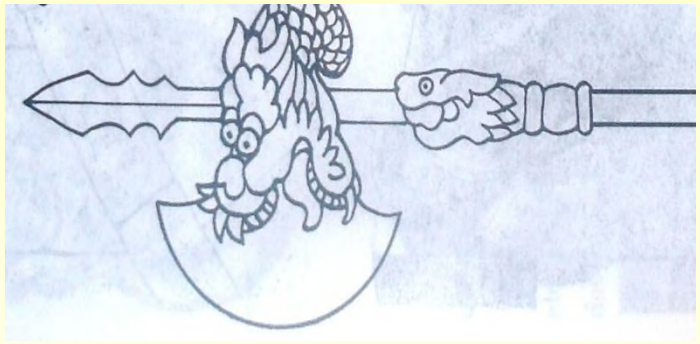
- 여섯째는 '螭首(리수)'
  - 물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대 또는 다리에 위치하며 배수구로도 사용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일곱째는 '睚眦(애자)'
  - 좋피 냄새와 살생을 좋아하며, 모습은 늑대를 닮았으며, 보통 칼의 손잡이에 새겨진다. 권위를 나타내고 힘과 용기를 북돋운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여덟째는 '狻猊(산예)'
  - 불과 연기를 좋아하고, 또한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용생구자설(龍生九子不成龍)

- 아홉째는 '椒圖(초도)'
  - 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문을 지키는 신수로 사용된다.





감사합니다